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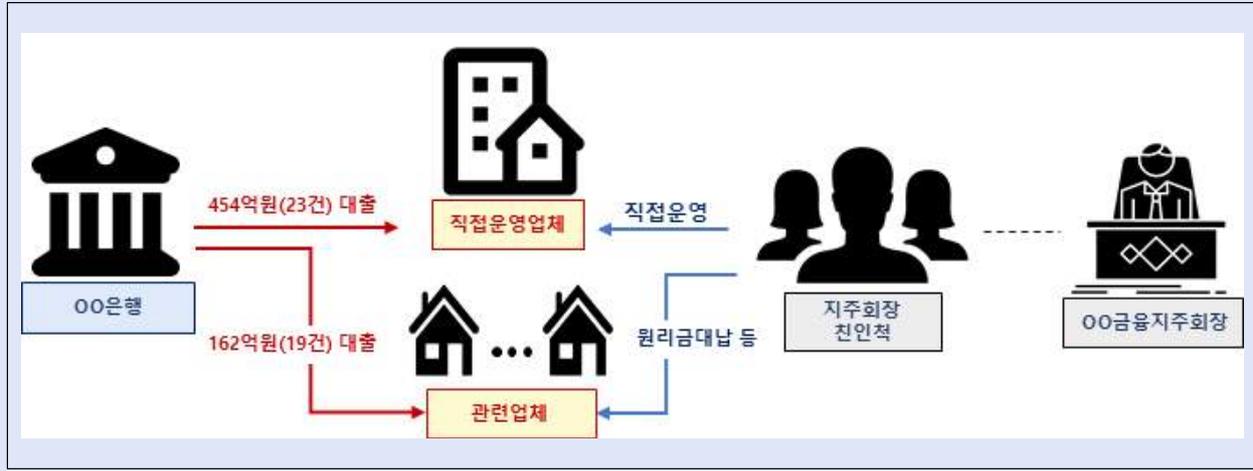
보도	2024.8.12.(월) 조간	배포	2024.8.9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	책임자	국장	김형순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장	박진호	(02-3145-7060)

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(잠정)

- ◆ OO은행은 '20.4.3.~'24.1.16. 기간 중 당해 은행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*를 대상으로 616억원(42건)의 대출을 실행
 - * 해당 친인척이 회사의 前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(23건),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동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(19건)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
- ◆ 1) 해당 대출건 중 28건(취급액 350억원)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
- 2) '24.7.19.기준, 전체건 중 19건(잔액 269억원)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중
- ◆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,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

<사건 구조도>



I. 검사결과 주요내용

-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OO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, 당해 은행이 '20.4.3.~'24.1.16. 기간 중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*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(23건)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,

* 해당 친인척이 前·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

-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(19건)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, 총 616억원(42건)의 관련 대출이 실행*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해당 대출건중 다수는 지역본부장甲의 주도로 취급되었고, 동 본부장은 既면직되었음

※ 동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,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(4.5억원)에 불과

- 한편, 해당 대출건 중 28건(취급액 350억원)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·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
 - '24.7.19. 기준, 전체 대출건 중 19건(잔액 269억원)에서 부실이 발생(기한이익 상실)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II. 부적정취급 관련 세부내용

- (서류 진위여부 확인 노력)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*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※ 차주의 사문서위조, 사기 등 혐의 존재

- ① **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(1차대출)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(2차대출)**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, 1차대출 실행후 차주가 제출한 **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(20억원)**가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**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(30억원)**에 미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**2차대출을 추가 실행**

✓ **[참고]** 친인척이 운영하는 **B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목적 대출 과정에서도,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**

- ② **C법인 대상 30억원 규모의 '거래처 대금지급 목적' 대출** 관련 **용도외유용 점검**을 실시하는 과정에서, 차주가 해당 대금의 **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(세금)계산서***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**추가 사실관계 미확인**

* 차주사가 제출한 **2건의 전자(세금)계산서 승인번호가 동일하였고, 이 중 1건은 차주사가 아닌 타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계산서였으며, 차주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전자(세금)계산서 역시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여부 조회결과 정상발급된 전자(세금)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**

- **(담보·보증 부적정)**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,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- ① **D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,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용가액이 전무(全無)한 부동산 담보 설정**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**상향 평가**하고 **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**

- ② **E법인의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***을 인지했음에도, **보증여력이 부족한 대표이사乙****을 보증인으로 입보했다는 이유로 **3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**

* 대출신청서류 상 동 법인의 **소액연체이력 및 보증보험의 대지급이력**이 확인

** 본인 소유 부동산에 **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**이 확인

- **(대출심사절차 위반)**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**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**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- ① **F법인** 대상 직전 실행된 대출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(용도외유용)되어 회수조치된 상황에서, 용도외유용 이력이 존재하는 해당 법인 대상 추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했음에도, 본점 승인없이 지점전결로 추가 대출 취급
- ② **G법인의 실제 신용등급**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승인이 필요했으나, 취급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없이 상향 평가한 후 지점전결로 대출을 취급하였고,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 미실시

□ **(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정)** 용도외유용 점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,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- **H법인** 대상 9억원 규모의 '물품구입목적'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 과정에서, 물품구입대금의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,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미발견

Ⅲ.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금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
 -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,
 -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,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, 금감원은 '23년부터 추진해 온 '지주·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'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'여신프로세스 개선'과 관련하여,

- 금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향후 검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